

약속, 그리고 가능성: Z

세대를 통한

성령의 역사

4 과를 통한 학습

기고자: 로렌조 A.

왓슨 윌 노만 목사

미셸 스카.허프만 목사



UKirk.org



Presbyterian Mission
**Office of Christian
Formation**

pcusa.org/formation

차 례

서 론.....	3
미국장로교 학원 복음화 역사.....	4
제 1 과.....	5
제 2 과.....	10
제 3 과.....	16
부록 1.....	24
부록 2.....	27
제 4 과.....	29

저작권 © 2023 미국장로교 선교국 산하 기독교 교육부와 UKirk 학원 사역

이 자료는 2023년도에 UKirk 학원 사역부가 미국장로교 선교국 산하 기독교 교육부와 협력하여 제작했다.

이 자료집의 일부는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교회, 특별 프로그램, 강의 시에 예배나 교육을 위해 복사해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복사본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서론

20세기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한 말로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도 포함)은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과 과정에 이 사고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막 어른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 즉 일반적으로 Z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과 관련된 성경과 시대의 흐름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과 과정을 학습하는 모든 이들이 학원 사역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젊은 세대들과 그 사역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몇일간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은 5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46-47, 52, 개역개정)

우리 역시 청년들이 영육 간에 성숙하여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성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대학생들은 자신들과 함께 앉아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해와 대답에 놀랐던 것처럼, 청년들과 동행하는 우리도 그들의 열정, 질문, 아픔, 이야기, 믿음에 놀랄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탐구하며 모든 피조물의 번영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장로교회에서 성장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교과 과정을 사용하셔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이 모든 이들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니 노리스-레인 목사, 디렉터
UKirk 학원 사역 협회

미국장로교 학원 복음화 역사

장로교는 미국에서 교육 선교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대 장로교 신학교와 대학 설립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에는 주립 대학에서 청년 사역으로 확대되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지적, 영적, 정서적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장로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교회 영역을 넘어서 진행한 가장 오래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미국장로교 제 219회 총회는 교단에 대학생 사역국을 두기로 투표했습니다. 그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태스크포스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것 중 하나는 미국장로교와 관련된 모든 사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에 갈 때 장로교 사역을 더 쉽게 찾고 "나의 새로운 영적 고향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UKirk라는 이름은 대학 커크(University Kirk; 스코틀랜드어로 교회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초청입니다.

오늘날 대학생 사역은 크고 작은 주립대학, 장로교 관련 대학, 사립 인문계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캠퍼스 사역자들이 이끌고 있으며,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의 일환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501c3 단체로, 하나 이상의 교단 파트너와 에큐메니칼 파트너십으로, 노회 사역의 일부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특정 소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청년들의 지적, 영적, 정서적 삶을 돌보고 양육하도록 계속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 1 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이 교과 과정은 온 교회가 지금 세대의 대학생과 청년들(일반적으로 Z세대라고 함)을 이해하여 그들의 인생의 계절에 영적, 육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연결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다면, 오늘 공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초대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세대를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도록 요청하세요.

초청하기

밈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특징이며, [리암 라이어](#)는 "문화적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상황이나 느낌에 대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것으로 때때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지아주 아테네의 고등학생인 엠마 다울링은 2020년 시더솔스 고등학교와 WJAG-TV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생 주도 간행물인 BluePrints에 밈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피드나 인터넷에서 Z세대 밈 검색을 통해 본 밈을 찾아 공유하도록 요청합니다.

- 어떤 점이 웃기거나 슬프다고 생각하나요?
- 이전 세대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 밈은 새로운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머, 트렌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는 기도

주님, 우리는 오늘 새로운 세대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는 데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문화 환경, 진화하는 영적 여정으로 가득 찬, 우리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주님의 신성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겸손히 구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두려움, 열망과 어려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소서. 선입견과 판단을 버리고 연민과 공감,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로운 세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거 성경구절(마태복음 22:36-40, 개역개정)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살펴 보기

마태복음 22장 36~40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답하신 심오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으며 신자들에게 지침이 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먼저임을,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과 레위기 19장 18절("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을 구약성경에서 인용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동료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포괄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두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렌즈가 되어 우리의 생각, 태도, 행동을 인도합니다.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6~40절은 신자들이 사랑 중심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키우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세상 전체에서 사랑의 변화시키는 힘을 일상 생활에 구현하고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리더 세대, 흔히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더 이상 [세대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략적으로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개인을 말합니다.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는 고유한 자질과 경험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프링타이드 연구소](#)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영성에 개방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며, 영향력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월드비전과 바나 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해 발표한 동영상을 신청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마태복음 22:36~40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잘 일치합니다.

또한 Z세대는 디지털 유창성, 포용적 사고방식, 글로벌 관점, 사회적 의식, 개인적 표현을 중시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유창성](#)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술에 둘러싸여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입니다. 따라서 Z세대는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커뮤니케이션, 학습 및 자기 표현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데 능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성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및 기타 사회적 표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평등과 사회 정의를 중시하며 포용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차별에 맞서 싸웁니다. 이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Z세대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자라며 글로벌 이슈와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기후 변화,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Z세대는 사회적 의식이 강하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 정신 건강 인식, 성 평등, 인종 정의와 같은 대의에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를 옹호하고 소셜 미디어를 그들 행동의 플랫폼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과 개인적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별성을 옹호합니다. 이 세대는 개인의 정체성, 창의성, 진정성을 포용합니다. 이들은 자기 발견을 위한 플랫폼을 추구하며 개인 브랜딩, 예술적 노력, 색다른 커리어 경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Z세대와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려면 이러한 Z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Z세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회와 기타 신앙 공동체는 Z세대 구성원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영적 여정에 멘토링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감과 지지를 제공하는 세대 간 연결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신앙과 현대적 이슈를 통합하여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관련성 있는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우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Z 세대가 자신의 의심, 두려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신 건강을 다루고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는 지역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Z 세대의 열정을 장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을 차세대 성인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즉 현재 이슈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신학적, 성경적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는 사명감과 목적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을 격려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Z 세대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교회의 의식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고 접근 방식을 맞춤화함으로써 Z 세대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간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토론하기

1. Z 세대가 개방적이고 관계적이며 영향력 지향적인 영성의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Z 세대의 디지털 유창성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그들의 영적 여정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3. Z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심, 두려움, 열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회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4. Z 세대의 영적 여정을 지원하고 멘토링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 예배, 교육, 봉사 활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Z 세대의 가치와 열망에 맞출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

1.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이 공과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거나 배웠나요?
2. 이를 통해 생각한 것들이 대학생/청년, 캠퍼스 사역, 청소년/청년들의 부모와 가족, 대학 교직원, 여러분의 교회, 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3.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그룹은 대학생 및/또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돌보도록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침 기도

주님, 우리는 사회 초년생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이 그들의 영적, 육체적, 지적, 정서적 안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이 위로와 수용,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신앙 여정에서 멘토, 영적 안내자, 동반자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청년들이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들의 의심과 질문이 은혜와 이해로 채워지는 영적 성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고 변화된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및 자료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세요.

인생의 모든 계절을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 1 과의 기고자는 현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 협회의 임시 CEO/회장으로 재직 중인 로렌조 A. 왓슨입니다. 로렌조는 쇼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2 과

진정성을 받아들이며: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이 과는 신앙 공동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할 때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회와 연결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다면, 오늘 공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초대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세대를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도록 요청하세요.

초청하기

각 참가자에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군대 또는 직장으로의 전환에 대해 나누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이 시기에 겪었던 도전, 두려움 또는 흥미진진한 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도기적 경험이 오늘날의 청년들과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다른니까? 다음은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예시 질문입니다:

1. 대학이나 직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유행했던 복장이나 패션 트렌드는 무엇이었나요? 돌이켜보면 여전히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나요?
2. 고등학교 때 꿈꿨던 직업이나 경력은 무엇이었나요? 직장, 군대 또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꿈이 바뀌었나요?
3. 초창기 룸메이트나 동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4.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특정 사람이나 멘토를 꼽을 수 있나요? 그들의 지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5.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직면했던 도전과 결정에 대해 신앙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여는 기도

오늘,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직장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과 두려움,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로운 성인들의 경험과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판단이나 가정 없이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그들의 희망, 꿈, 어려움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동반자이자 조력자,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근거 성경 구절 (로마서 12:1-2, 개역개정)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펴 보기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힘을 강조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신자들의 지침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드림의 행위는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들은 변화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 태도, 관점을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맞추는 지속적인 과정인 마음의 새로 고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로마서 12:1-2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Z 세대의 신흥 리더들이 대학과 직장을 준비할 때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Z 세대 성도들이 야망, 두려움,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대한 그들의 신앙적 연결은 그들의 의사 결정을 인도하고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전형적인 신세대 성인 스트레스와 그들 세대만의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전 세대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Z 세대도 어린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또는 직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 대학 전공 결정, 명확한 방향성 없이 직장에 입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은 많은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Z 세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한 것이 특징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학교와 대학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Z 세대의 교육 여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과 또래 및 교사와의 대면 상호작용 부족은 학습 효과, 사회성, 전반적인 학업 경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23년 2월 14일에 업데이트된 [애니 케이스리 재단](#) 문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는 시대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성별, 인종, 가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약 70%의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증이 또래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Z 세대는 학교 총격 사건, 학자금 부채, 실직, 정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연결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은 일부 청소년에게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소셜 미디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종종 소셜 미디어에서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며, 이는 부적절함과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선별된 온라인 생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Z 세대는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 사회 및 정치적 분열, 기후 변화의 지속적인 영향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Z 세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교육비 상승과 학자금 대출 부채의 부담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열정이나 소명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Z세대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회는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에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커뮤니티 구축, 지도, 신앙 통합을 통해 교회는 로마서 12장 1-2절에 강조된 것처럼 Z 세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차세대 성인들은 회복력과 목적의식을 갖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중요한 인생의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토론하기

1. 로마서 12장 1-2절에 요약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가 Z 세대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대학이나 직장에서 목적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신앙 공동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Z 세대가 직면한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3. 교회는 교육비 상승과 학자금 대출 부채 등 Z 세대가 직면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요?
4.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Z 세대가 소셜 미디어로 인한 비교와 경쟁의 압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수용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5.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전환기에 있는 Z 세대 성도들에게 멘토와 경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관계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응답하기

1.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이 공과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거나 배웠나요?
2. 이를 통해 생각한 것들이 대학생/청년, 캠퍼스 사역, 청소년/청년들의 부모와 가족, 대학교직원, 여러분의 교회, 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3. 여러분의 그룹은 대학생 및/또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돌보도록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침 기도

주님, 젊은이들의 고민과 도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이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할 때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지혜와 공감과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적 성장, 독립, 목적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독특함을 포용하고 그들의 은사를 키워주는 지지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청년들이 걸어갈 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소서. 학업, 사회, 재정 등 그들이 직면한 압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과 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또는 직장으로의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과 회복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멘토, 카운슬러, 친구들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지도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 목적을 발견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로서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서서 영적, 정서적, 실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시고 인생의 모든 계절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미국장로교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 과에서 언급한 도전에 비추어, 다음은 미국장로교 신앙 공동체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모두가 의심, 두려움, 열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대화, 존중,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Z 세대 회원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는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2.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험 많은 멘토와 Z 세대를 연결하세요.
3. 청년들에게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도록 요청합니다.
예배, 당회나 집회, 또는 청년들의 관심사와 열정에 맞는 사역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초대하세요.
4. 커뮤니티의 모든 연령대가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탐구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종종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5.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정신 건강에 대해 열린 대화의 기회를 만듭니다. 이는 필요할 때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에게 자원과 소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6. 지역 대학 재정 지원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학부모, 청소년, 청년을 위한 대학 학비 납부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요청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대학이나 신학교에 진학하는 교인들을 [미국장로교 재정 지원 사무소](#)와 연결해 주세요.

제2 과의 기고자는 현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 협회의 임시 CEO/회장으로 재직 중인 로렌조 A. 왓슨입니다. 로렌조는 쇼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3 과

더 넓은 범위의 교회를 위한 캠퍼스 사역

이 강의에서는 대학생 사역의 바탕이 되는 신학적, 성경적 영감을 탐구하여, 참가자들이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 전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연결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다면, 오늘 공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도록 이끌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세대를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도록 요청하세요.

초대하기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통찰력을 나누도록 요청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자랐다면(아마도 현재도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교회에 가는 것을 중단한 시기가 있었나요? 그 시기는 언제였으며, 왜 중단했었나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세 명의 대학생을 만나봅시다. [\[슬라이드\]](#)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방금 읽은 대학생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비슷하나요? 또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는 기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존재이시여,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당신의 교회를 풍요롭게 할 때,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사, 당신의 영이 움직이시는 새롭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방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1-13)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12 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학 시기는 청년들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분별하는 방법을 더 깊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18-23세 사이의 청년들은 대학 강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교과 외 활동, 리더십 활동, 인턴십, 자원봉사 기회 등을 통해 성인이 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또한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 의도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가 가진 기술, 은사, 관심사, 능력, 성격, 신앙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와 연결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데이트, 결혼, 전공, 직업 선택, 우정, 가족 관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 풍부한 탐구와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회와 경험을 형성하며, 사회, 교회,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청년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권력자("그 시대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의 항상 어리석은 소리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호소를 비현실적인 순진함이나 미성숙함, 즉 어리석음으로 무시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에 전달하시는 지혜, 즉 "감추어진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살펴 보기

다음에서는 다음은 교회가 이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신학적, 성경적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서약의 성취로서의 캠퍼스 사역

미국장로교 [2022년 총회 통계 보고서](#)

18-25세 사이 교인:

2019: 129,927

2022: 69,433

[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미국장로교에서 세례받는 모든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세례 예배 예식은 장로교 [공동 예식서](#) 408-409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 부모에게

...가/이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신은 그리스도 인으로 살기를 서약하고 기독교

신앙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나 대모가 있다면, 세례식 진행자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기도와 간증으로 ...을/를(..와/과 ... 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도울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린이들에게는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442-43). 세례식 진행자는

회중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을/를(...와/과 ...을/를)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고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그분의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격려하시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장로교인들은 각 개별 교회가 지역 신앙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제자화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믿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을 돌보고 영적 성장을 돕겠다는 이 약속은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과 신앙 공동체 모두 "교회에서 자라나"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사역에 투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는 일은 끝이 없으며, 변화하면서 진행됩니다.

선교와 복음화로서의 캠퍼스 사역

Z 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가장 덜한 세대입니다. Z세대의 3분의 1 이상(34%)이 종교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는 밀레니얼 세대(29%)와 X세대(25%)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5명 중 1명 미만(18%)이, 침묵 세대의 경우 9%만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링크](#) - 미국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센터]

2019년까지 최근 수십 년 동안 관찰된 패턴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종교를 바꾸는 비율이 더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퓨 리서치Pew Research]는 기독교인으로 자란 사람들의 31%가 15~29세 사이에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를 바꾸는 일이 집중되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링크](#) - Pew Research Center]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는 복음은 그리스어로 *euangelion*이며, 이는 신약 27권 속에서 130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인 *evangel*, *evangelism*, *evangelical* 등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euangelion*)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의 공적인 사역을 이사야서를 읽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다르게 말해보면, [복음]은 깊은 곤경에 처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천국에서의 내세를 약속하거나 지옥에서의 내세를 두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억압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 현재의 질서에서 다른 길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The Gospel: An Emancipation Proclamation*에서 발췌)

저는 조지아 대학교의 장로교 학생 센터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캠퍼스 사역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된 목표는 성경적으로 본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일련의 믿음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함께 세상에 존재하는 대안적이고 해방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초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 현장"은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로교나 기타 교단에서 자란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이웃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26절](#)에서 "바울은 명백히 냉담하고 비기독교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일지라도 고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치라는 지시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세상이 새로워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는 억압과 포로됨, 상상력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성한 해방이 도래했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굴복해야 할 또 하나의 분노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화신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성소 한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하고, 그 소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이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웃과의 삶에서 종종 그 사실을 잊거나 단순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Christianity (Re-)Converted*에서 발췌)

아웃리치(Outreach)와 목회적 돌봄으로서 캠퍼스 사역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Z 세대의 45%만이 그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양호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 그룹에서 이에 대한 통계는 훨씬 나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56%, X 세대는 51%였고 베이비 붐 세대에서는 70%였습니다. Z세대는 가장 우울한 세대라고 불렸지만,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신 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이전 세대보다 더 높습니다. Z세대의 약 37%(이전 세대보다 높은 비율)가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료 접근성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주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12~19세 청소년 중 43%만이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습니다. [[링크](#) —Annie E. Casey Foundation]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I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 왕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대답할 것이다. (마태복음 25:34-40)

[아웃리치](#)의 정의는 "보다 멀리 도달하다"입니다. 그리고 미 전역 회중과 대학 사역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 공동체 내의 사람들과 교회 담장 너머의 사람들을 돌보도록 요구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이웃에게 육체적, 영적, 정서적, 지적,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어떻게 부름받았는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타자'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사역은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떠오르는 리더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과 ChatGPT는 지금 고등 교육의 벽을 흔들고 있습니다. *ChatGPT를 사용하면 학생이 책을 읽거나 직접 쓰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도 과제를 제출하고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 쓰는 것은 배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 대학 졸업생에게 기대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링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9 - 13)

ChatGPT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고등 교육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링크\]](#) ChatGPT가 생성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18-23세의 두뇌 발달, 행동 습관 형성에 대한 시사점, 추가 읽을거리 추천 [이 세션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1 참조]
- 18~23세의 영적 발달 [이 세션 말미에 있는 부록 2 참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미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난제들 넘쳐나는데, ChatGPT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이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인류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외로움은 이제 공중 보건의 위기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0세 사이에서 그러합니다.

오늘날 청년의 영적 교육은 보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내심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윤리적인 도전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른으로서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두뇌 발달과 기술적 현실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학생들의 영적 발달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인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영적 실천을 탐구하고, 서로를 돌보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옹호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기

1. 청년 교인들이 대학 진학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되면, 그들이 세례식에서 회중이 했던 서약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Ukirk(지역 그리고/또는 전국)와 협력하여 3-4개의 간략하고 성취가능한 목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18-23/26세 사이의 교인들에 대한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2. Z세대의 정신 건강 통계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지역 캠퍼스 사역자에게 목회적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요? (캠퍼스 사역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기독교 전통의 목회적 돌봄을 대학 지역에서 받을 수 있을 때 느끼는 친밀감과 지식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캠퍼스 사역은 오랫동안 '선교 현장'의 측면을 포함했지만, 최근 Z세대에 대한 통계와 종교를 가졌다가 포기하는 일에 관한 통계는 캠퍼스 사역의 선교적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캠퍼스 사역의 '개종자'(전통적인 장로교 틀에는 맞지 않지만 장로교 캠퍼스 사역에서 영적인 분향을 찾은 학생)를 신실하고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4. 대학 시기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윤리적인 도전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른으로서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시기를 보내는 대학생들의 두뇌 발달과 기술적 현실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교회는 어떻게 신성한 지혜와 은혜와 도움과 위로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관계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어떤 자세가 장애물이 됩니까?) 젊은이들의 영정 성장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신실하게 추구했어야 하나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하기

1. 이 공과에서 제시된 정보와 여러분의 그룹 토론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그들의 시간, 에너지, 지성, 상상력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교회에 무엇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까(또는 무엇을 들었는가)?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은 무엇인가요?

2. 제도적인 교회에 Z 세대가 참여하거나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에서 세대가 크게 이탈하는 현실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길은 무엇일까요? 잃을지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3.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Z세대 교인들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혹은 Z세대를 관찰하고,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잘하거나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이 공과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거나 배웠나요?
5. 이를 통해 생각한 것들이 대학생/청년, 캠퍼스 사역, 청소년/청년들의 부모와 가족, 대학 교직원, 여러분의 교회, 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마침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젊은 세대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희를 인도하사 젊은 세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받은 복음을 나누도록 애쓰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3과는 조지아대학교 장로교 학생 센터의 캠퍼스 사역자 윌 노먼 목사가 저술하였습니다.

부록1

질문: 18-23세 사이의 두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ChatGPT

1 / 1

18-23세 사이는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두뇌에는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계속됩니다. 이 나이에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한 뇌 발달의 핵심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1. 전전두엽 피질 발달: 의사 결정, 충동 조절, 계획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도 계속 발달합니다. 이 부분 두뇌는 판단, 추론, 자기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미엘린 수초화(Myelination) : 신경 섬유 주위에 보호막(수초)을 형성하는 과정인 수초화는 이 시기에도 계속됩니다. 미엘린은 신경 통신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에 신호를 더 빠르고 동기화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감정 조절: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은 특히 전전두엽 피질과 변연계에서 계속 발달합니다. 이 발달은 감정 조절, 충동 조절 및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4. 인지 능력: 비판적 사고, 추상적 추론, 문제 해결, 의사 결정과 같은 인지 능력은 이 시기에도 계속 성숙해집니다.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뇌의 능력은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정교해지면서 향상됩니다.
5.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주로 도파민 방출에 의해 주도되는 뇌의 보상 및 동기 부여 시스템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특히 활발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고, 참신함을 추구하며, 잠재적 보상을 평가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또래의 영향: 뇌 발달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은 이 시기의 또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은 사회적 수용과 또래의 피드백에 반응하여 의사 결정과 위험 평가 능력을 형성합니다.
7. 정체성의 강화: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자아 발견과 정체성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뇌 발달은 개인의 가치, 신념, 인생 목표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개인은 보다 일관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두뇌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18~23세 연령대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 삶의 경험, 유전적 요인도 두뇌 발달과 상호작용하여 인지 능력, 감정 조절, 행동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 일어나는 두뇌 발달은 행동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기의 뇌 발달이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질문: 이러한 요인들이 행동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1. 적응성과 신경 적응성: 뇌는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에 높은 수준의 적응성을 나타냅니다. 즉,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개방적이어서 새로운 행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이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습관 형성: 습관 형성에 관여하는 기저핵 같은 신경회로는 이 나이에 계속 발달합니다. 이것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쉽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기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됩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그들의 웰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3. 강화 및 보상 시스템: 이 시기에는 도파민 방출과 관련된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보상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여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상이나 쾌감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해당 행동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강화되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또래의 영향: 청소년기 후반과 청년기 전반에 걸친 시기에 또래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배경은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의 보상 시스템은 또래로부터의 피드백과 사회적인 수용에 반응을 합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추구함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정 습관이나 행동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 행동: 전전두엽 피질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개인은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되고 실행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의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가능해지며,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행동 습관의 형성은 두뇌 발달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반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뇌의 변화는 개인이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의도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 더 알고 싶다면 어떤 자료들을 참조해야 할까요?

1. 과학 저널: 신경과학, 심리학, 발달과학 분야의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저널은 두뇌 발달과 행동 습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위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저널로는 "발달 인지 신경과학", "뉴로이미지", "발달 심리학", "청소년 및 청소년기 저널" 등이 있습니다.
2. 도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뇌 발달과 행동에 관한 주제를 탐구하는 여러 책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Frances E. Jensen and Amy Ellis Nutt의 "The Teenage Brain: A Neuroscientist's Survival Guide to Raisi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Barbara Strauch의 "The Primal Teen: What the New Discoveries about the Teenage Brain Tell Us about Our Kids," Sarah-Jayne Blakemore의 "The Changing Brain: Insights into Aging and the Adolescent Brain."
3. 연구 기관 및 단체: 학술 및 연구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두뇌 발달 및 행동과 관련된 기사, 보고서, 리소스를 자주 게시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아동발달연구학회(SRCD) 등이 있습니다.
4.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PubMed, Google Scholar 또는 PsycINFO와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면 해당 주제에 대한 학술 논문, 연구 논문 및 리뷰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기 초반의 두뇌 발달 및 행동 습관과 관련된 특정 키워드 또는 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웹사이트 및 온라인 강좌: 신경과학 또는 심리학에 중점을 둔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예: Khan Academy, Coursera 또는 edX)에서는 이 연령대의 두뇌 발달 및 행동에 관한 강좌 또는 교육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을 우선시하며,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평판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록 2

18-23 세 사이의 영적 형성

ChatGPT

18-23세 사이의 영성 형성은 이들이 젊은 어른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동안 사람들은 믿음, 가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는 합니다. 영적 형성은 한 사람의 영적인 삶과 신앙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18-23세 청년의 영적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탐색을 장려하세요: 이 연령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탐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고, 다양한 영적, 철학적 관점을 탐구하도록 격려하세요. 이러한 탐구는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멘토링: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도전에 공감할 수 있는 멘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토는 지침을 제공하고, 자신의 영적 여정을 공유하며, 비판하지 않고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친목: 청년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지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의심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경적 신학적 가르침: ,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주제들을 다루면서, 견고한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신앙과 실제 생활 속 상황을 연결짓는 것은 영적 믿음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와 지원활동 기회: 봉사와 지원활동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며 타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기회는 목표의식과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을 촉진합니다.

기도와 묵상: 규칙적으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격려하십시오. 젊은이들은 여러 형태의 기도와 묵상을 배워서 거룩한 존재와의 관계를 깊게하고 각자 영적인 여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서 및 정신 건강 지원: 청년들이 이 과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정서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인식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전반적인 영적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의심과 문제를 다루기:의심과 질문들이 환영받고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년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더 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예배의 정신을 함양하기 :젊은이들이 음악, 시각 예술, 기타 표현방식을 이용한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탐구해보도록 돕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분과 연결되고 경외감과 경건함을 기르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자아 성찰을 격려하기: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평가하고 신앙 여정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세요. 자아 성찰은 의도적으로 영적 형성을 힘써 하도록 이끕니다.

개인의 영적인 여정은 다 다르며, 누구에게나 적합한 방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젊은이들의 웰빙을 위한 유연성, 열려 있음, 진정한 돌봄은 인생의 주요 시기동안 영적 형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 4 과

신실한 동행: 신앙 통합의 네 단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기

이 과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가족과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체계를 성인기를 거치면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고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신중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에 기대도록 초대합니다.

교회와 연결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다면, 오늘 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초대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세대를 지원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도록 요청하세요.

초대하기

부모이자 목사인 한 대학교수가 성서 연구 과목을 가르치면서 밀레니얼 세대와 신앙에 관한 책을 읽고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아우성치는 교회에서 마치 구경거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여러분은 우리를 키우셨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스터리한 존재인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에 대한 경험을 나누도록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게 합니다:

1.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2. 그 공동체의 삶에 소속감을 느꼈나요?
3. 신앙에 관한 질문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4. 의문이 들었을 때, 누구와 감정이나 의문을 공유했나요?
5. 종교적 또는 영적인 양육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공감하는 종교 전통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신앙 형성을 하는 일들은 때때로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심과 질문이 많은 이러한 발달 단계를 은혜롭게 헤쳐나가게 돕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동시에 청년들의 영적 안녕과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여는 기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신앙과 삶의 모든 계절에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실천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충실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거 성경 구절 (신명기 30:19b-20; 마가복음 3:31-35)

신명기 30:19b-20

[19b]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마가복음 3:31 - 35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살펴 보기

장로교 교회에서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회중은 아이와 아이 가족에게 자체적으로 세례 서약을 합니다. 이 성약 교환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은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세례받은 사람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worship/faq/faq-baptism/>)

교회 공동체는 종종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정말 뛰어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변에 모인 교회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돌봄의 초점이 달라지는데, 때로는 신체적 돌봄이 최우선이고 때로는 정신적, 정서적 돌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령과 단계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영적 안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 및 사고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뿌리와 날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팀 클라이드데일(Tim Clydesdale)은 사회학자로서 사회 초년생들을 연구해 왔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그룹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가는 것 같다고 느끼며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책 '*대학에서의 첫 해(The First Year Out)*'에서 인터뷰한 한 학생은 "마치 신이 나를 대학에 내려놓고 '4년 후에 보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저를 대학에 데려다 주면서 같은 말을 한 것 같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계절에 경험하는 변화는 신앙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선한 모든 시간: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Calling All Years Good: Christian Vocation throughout Life's Seasons)*이라는 책에서 캐서린 터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부여되는 헌신과 책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발달 심리학자 샤론 파크스는 고등 교육, 경제 및 직장, 정치, 종교, 가족의 영역에서 적절한 멘토링이 필요한 이 시기의 "청소년기 이후의 자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성공과 낭만적 승리를 특권으로 여기는 사회적 각본의 요구 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목적이 담긴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애쓰면서 소명의 요구는 선물과 저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성인기 소명의 핵심 부분은 가족과 출신이라는 배경이 제공하는 구조 밖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 내재적 신학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신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쳤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중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봐, 자네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당신을 찾고 있어. 예수님은 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요? 누가 나의 형제인가?"* 이 글의

보다 넓은 맥락은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그를 데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청년의 삶이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 청년을 '구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원래 가족 안에서, 심지어 신앙 공동체에서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의 한계를 넘어서셔야 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러하듯, 예수는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약을 가르치는 매튜 스키너는 "예수는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이가 누구인지 기준을 새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정신에 대한 어머니와 형제들의 의견에 반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이나 친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진정한 가족을 결정할 때 깊이 내재된 문화적 가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정체성 형성과 신앙 발달은 항상 동시적인 과정, 즉 모든 연령과 단계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및 공동체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경험하는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본문은 생명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책임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며, 우리만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부모이든 아니든, 세례 서약에 참여했거나 젊은 그리스도인의 입교에 참여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본문은 모세가 방황하는, 지치고 화나고 슬프고 혼란스럽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일을 앞두고 들려준 연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대한 일을 앞두고 지치고, 화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교수인 캐롤린 샤프는 "백성들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마음과 영혼과 몸을 바쳐 자신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활기찬 관계에 헌신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손이 살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참여하는 방식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며, 신앙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깊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때때로 말에 부주의하고 신학에 경솔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발달을 "모든 것에 맞는 획일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으며, 때때로 신경학적, 이념적 차이,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의심과 의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 한 주립대학의 진보적인 캠퍼스 사역과 관계를 맺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락처 정보를 공유한 학생의 75%가 "종교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트라우마, 즉 '교회 상처'를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성스러운 의식과 노래, 말씀을 되찾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형성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자유롭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캠퍼스 사역에서는 **신앙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치유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 통합의 4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교회 사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전 생애에 걸쳐 치유, 해체, 신앙 개발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성인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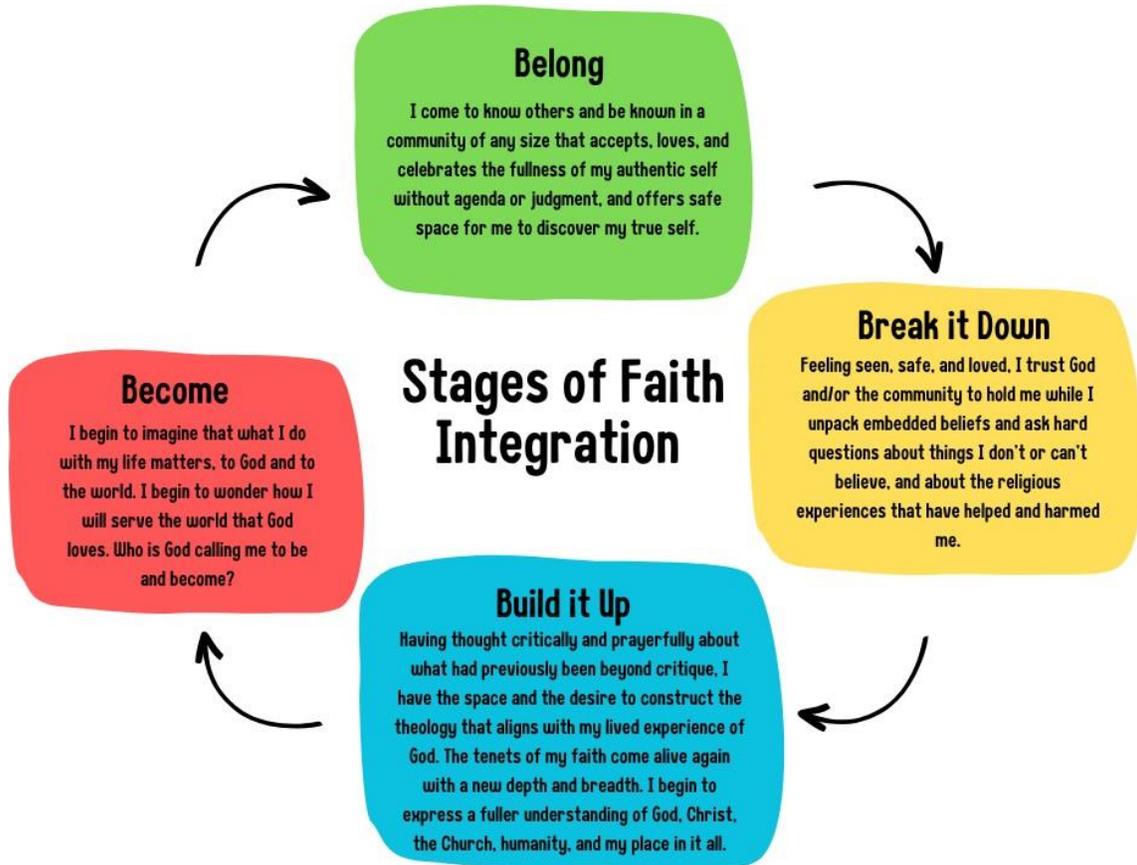
소속감을 가지기 - 의제나 판단 없이 나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축하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규모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게 됩니다.

무너뜨리기 - 내가 인정받고, 안전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내재된 믿음을 풀고 내가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종교적 경험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하는 동안 하나님 및/또는 커뮤니티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구축하기 - 이전에는 비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결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생한 경험과 일치하는 신학을 구축할 공간과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교리가 새로운 깊이와 폭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인류,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루어가기 -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세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가?

교회에는 언제나 다양한 신앙 통합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4단계를 거쳐 단 한 번에 신앙과 소명의 부르심에 충만하게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새로운 소명, 발견 또는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이 주기로 초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필요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토론하기

이제 각 신앙 통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접점을 교회와 사역의 모든 활동에 어떻게 통합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아래에는 신앙 통합의 네 단계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신학적 주제는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사역 활동 또는 접점을 계획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 및/또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기(환영, 포용, 축하) 여기서 내가 안전한가?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가? 그들은 나의 모든 부분, 특히 다른 곳에서 거부당했던 부분을 환영하는가? 나는 모든 의심, 두려움,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무너뜨리기(해체) 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 중 나중에 삶의 경험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 신앙 경험에서 어떤 부분이 기초가 되고 어떤 부분을 버릴 수 있는가? 나의 종교적 여정에서 어떤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나요? 어떤 경험으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고 느꼈나요?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는 동안 내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문을 환영하십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구축하기(구성 신학) 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신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신실한 신학적 성찰에서 나의 상황은 중요합니다.

이루어가기(소명 분별) 무엇이 나를 살아 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나의 은사와 열정과 세상의 큰 필요의 교차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느끼는가? 나의 신학적 이해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후 어떤 새로운 관심과 가능성이 생겼는가? 나는 어떤 호기심을 탐구하고 싶은 내적 이끌림을 느끼는가? 어떤 영적 실천이 나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가? 다음 신앙적 단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하는 활동: 그룹 구성원들에게 인생의 이 계절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각 신앙 통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접점을 찾거나 새로운 접점을 브레인스토밍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응답하기

참가자들은 다음 세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이 과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거나 배웠나요?
2. 이를 통해 생각한 것들이 대학생/청년, 캠퍼스 사역, 청소년/청년들의 부모와 가족, 대학 교직원, 여러분의 교회, 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3. 여러분의 그룹은 대학생 및/또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돌보도록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침 기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옵건데, 저희가 계속 성장하고 배우며, 계속 자신을 이루어가며 새로운 모습이 저희 안에서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인식하고 함께 창조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우리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담대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친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에 기대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를 도우사, 가족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 재정의하신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가 인간적이면서도 거룩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제 4과는 미주리 주립 대학의 진보적인 캠퍼스 사역인 에클레시아 캠퍼스 사역(Campus Minister of Ekklesia)을 섬기는 미첼 스콧-호프맨 목사가 저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기독교 교회)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인 미첼은 UKirk 대학생 사역 협회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